



생활공감 모니터단 워크숍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는 2016년도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이 전라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와 도내 모니터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자리를 함께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다양한 도정정책의 감시자인 동시에 도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책임·나눔·봉사의 역할을 다해 도민 행복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도내 기업 체감경기 다시 내리막길

4월 급증 BSI 6월엔 하락할 듯... 제조업 매출·생산·가동률·채산성·자금사정 전망 크게 하락 예상

총선 이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던 도내 기업경기에 먹구름이 드리운 형상이다. 특히 조선·해운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름에 따라 도내 제조업의 매출 및 생산 전망 등은 암울하다. 이런 가운데 취약업종(건설·철강·석유화학 등)으로 구조조정이 이어질 경우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휘청거릴 것이란 전망이다. 그나마 전북은행의 경우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5월 중 전북지역 제조업 기업 업황 BSI가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61→61)된 가운데 6월(65→63)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의 경우 5월 BSI 하락(65→63)에 이어 6월도 떨어질 것(67→65)으로 예측된다. 지난 4월 BSI가 크게 오르며(50→61)로 오름세로 돌입하던 도내 기업 체감경기가 다시 내리막길을 바라보

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은전북본부가 밝힌 6월 기업 전망은 제조업의 경우 매출 전망(83→76), 생산 전망(90→79), 신규수주 전망(85→76), 가동률 전망(90→80), 채산성 전망(91→82), 자금사정 전망(84→79) 등 모두 5월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 이 같은 현상은 내수·수출 부진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은 물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설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기개선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에는 새만금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이 내수 부진의 원인으로 '투자 포기'(OCI 등)를 선언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비관적인 심리가 급속도로 번져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 매출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여파로 악화된 경기에 지

방은행들도 초긴장 상태이다. 구조조정 여파가 건설·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5대 취약 업종으로 확대될 경우 이 분야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폭탄을 맞을 것이란 이야기다.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업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은 경기민감업종(조선·해운, 관련법령 및 자율협약에 의거), 부실장후기업(개별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거), 공급과잉업종(철강·석유화학 등, 기업활력제고법 의거)의 3개 트랙(three track)으로 동시 추진된다. 따라서 향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 대한 은행 여신의 부실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북은행은 그러나 지방은행 중에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국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NICE) 신

용평가가 최근 발표한 '5대 취약업종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은행별 파급 효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취약업종 여신 비중은 부산은행이 19.6%로 가장 높고 경남은행(17.5%), 대구은행(13.2%), 광주은행(10.7%), 전북은행(8.2%) 순이다. 특히 공급과잉업종으로 분류된 철강·건설·석유화학의 비중은 전북은행(7.4%)을 제외하고 모두 10%를 넘었다. 더군다나 지방 은행 대부분이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이에 대해 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대부분 지방은행들이 해당 여신을 모두 정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조선·해운에 이어 철강·건설·석유화학까지 확대된다면 막대한 총당금으로 지방은행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 전북대학교(삼성문화회관)에서 '전북지역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으로 이전한 6개 공공기관과 전북도 산하 6개 공기업 및 2개 지역은행, 6개 지역대학이 참여하는 설명회로, 공공기관들의 올해 채용요강, 지역인재 취업사제 및 모의면접, NCS 기반 채용방법소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사장 외부에 참여기관별 채용상담관(부스)을 설치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전북지역 대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올 도내 개별공시지가 전년비 4.53% ↑

전주시 금강제화 부지 m당 695만원으로 가장 비싸

전북지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전주 고사동의 금강제화 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는 올해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가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53% 상승했고 조사대상토지는 총 261만2615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금강제화 부지로 m당 695만원이다. 반면 최저지가는 장수를 덕산리 임

전북도, 여름 가뭄 '이상 무'

5월 말 현재 저수지 평균저수량 79.7%

전북도는 도내 저수량이 충분히 여름 가뭄을 앓을 것이라 전망했다. 30일 전북도는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5월말 현재 저수량이 79.7% 수준까지 회복됐고, 관정 등 가뭄대비 용수원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돼 농업용수 공급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저수량은 평년보다 약 10% 높은 것으로 지난해 보다도 8.9% 높다. 앞서 도는 지난해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올해 봄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될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허덕였다. 그러나 늦가뭄부터 올해 봄까지 예년 평균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또한 가뭄발생에 대응해 232억원(국비 218억원, 지방비 14억원)을 투자, 지난해 9월부터 용수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올해도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자연적인 강수 외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답수,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제한적인 모래급수(못자리급수) 및 하천유지용수 방류 최소화 등 농업용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최병만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강수부족으로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정개발 등 가뭄발생에 대비하고 물 아껴쓰기 운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 RPC 가공시설 현대화 등 124억 투입

군산 대야·익산농협 RPC에 각각 50억, 벼 건조·저장시설 5개소에 24억

전북지역 쌀이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30일 전북도 벼 건조·저장시설 5개소에 총 124억이 투입돼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저장시설 확대 등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 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물론 RPC 가공시설의 현대화, 농가교육,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것으로, 가공시설에는 군산 대야농협 RPC와 익산농협 RPC에 각각 5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자부

담 20억)이 투입된다. 이번 투자로 인해 해당 RPC는 최신 가공시설 및 설비를 갖춰 가공능력 향상과 쌀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위해 농가 계약재배를 확대할 경우 RPC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현대화 시설로 가공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원활한 농가 벼 매입을 위해 벼 건조·저장시설 5개소에도 24억이 투자된다. 지원대상은 군산 회원농협 RPC, 정읍통합 RPC, 남원농협 RPC, 김제통합 RPC, 남부농협 건조·저장시설(DSC) 등이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의 전문가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특히 군산 대야농협, 익산농협RPC는 서류·현장·공개발표 등 3회에 걸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정영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주간(주말), 야간면접 특강
스피치·시낭송·면접·웃음치료·매직(마술)

- ◎ CEO, 2% 부족함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1회 교육
 ③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 초등부)

〈김양욱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전북1호 강사
 • 한국음변인협회 전북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05인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사)한국음변인협회, (사)한국음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 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 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l.com